

**더불어민주당**

---

**활동결과 보고서**

---

**2022. 12. 9.**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 I. 활동결과 요지

## 1.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및 활동 일지

### 가. 구성

순번	성명
1	[단장]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	[간사]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
3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4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5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6	김우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7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8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9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10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11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2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 나. 활동 일지

#### □ 주요 활동

일자	내용	장소
2022. 10. 26.	제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설치 보고	국회 본청 당대표실
2022. 10. 28.	1차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2022. 11. 9.	금융감독원 현장 방문 (금융감독원의 사진촬영 거부로 간담회 무산)	금융감독원
2022. 11. 9.	중앙정부 위기대응 관련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2022. 11. 14.	강원중도개발공사 간담회	강원중도개발공사 현장사무소 2층 대회의실
2022. 11. 14.	강원도청 간담회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
2022. 11. 14.	강원도 현장방문 관련 기자회견	강원도청 브리핑룸
2022. 11. 17.	조사단 활동 관련 정책조정위원회 논평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2022. 11. 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2022. 12. 9.	2차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 [참고자료 1] 진상조사단 1차 기자간담회 성명서 (2022. 10. 28.)
- \* [참고자료 2] 진상조사단 중앙정부 위기대응 관련 기자회견 (2022. 11. 9.)
- \* [참고자료 3] 진상조사단 강원도 현장 방문 결과 보도자료 (2022. 11. 14.)
- \* [참고자료 4] 진상조사단 금융위·금융감독원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 (2022. 11. 21.)

□ (참고) 자료 확보 관련 활동

일자	대상기관	내용
2022. 10. 27.	BNK투자증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관련 자료 요구
2022. 10. 28.	BNK투자증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관련 자료 수신
2022. 11. 1.	금융위원회	금융위기사태 대응시스템 및 대응조치 자료 요구
2022. 11. 4.	금융위원회	금융위기사태 대응시스템 및 대응조치 자료 수신
2022. 11. 15.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 요구
2022. 11. 1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21. 간담회 관련 자료 요구
2022. 11. 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21. 간담회 관련 자료 수신
2022. 11. 22.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 수신
2022. 11. 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기사태 대응시스템 및 대응조치 자료 요구
2022. 11. 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기사태 대응시스템 및 대응조치 자료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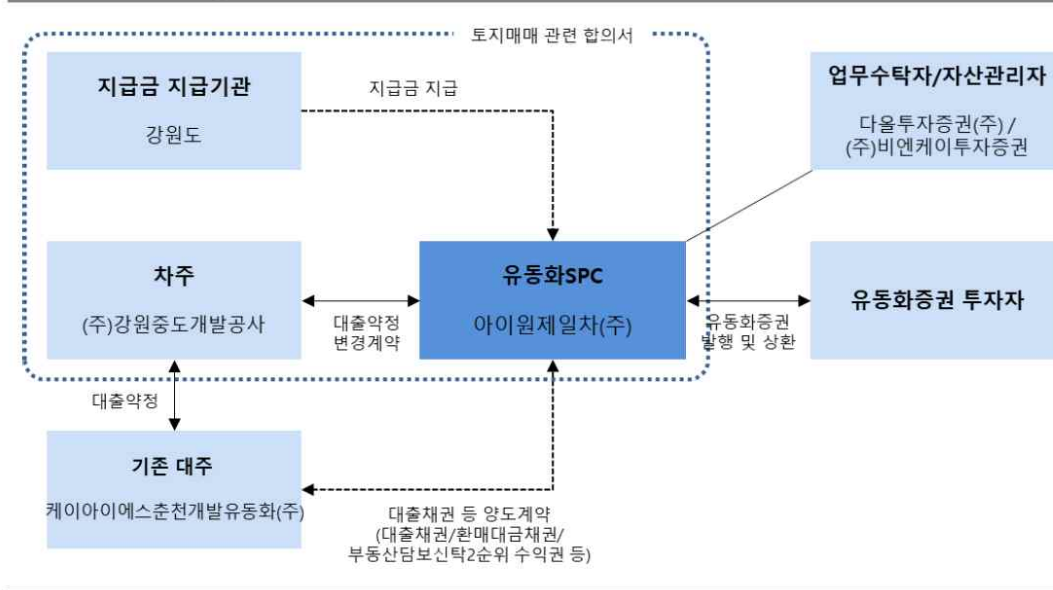
## 2. 진상조사단 주요 확인 사항

### 가. 2022. 9. 28. 당시의 상황

-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강원도가 그 지분 44.02%를 보유하고 있음.
-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050억 원을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아이원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상황이었음(이하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아이원제일차 사이의 대출계약을 ‘본건 대출계약’이라고 함).
  - 아이원제일차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로, ABCP(자산담보 부기업어음,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발행을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위 대출금을 조달하였음.

- 그리고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위하여 아이원제일차에 대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이에 따른 본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은 본래 2022. 9. 29.이었음.

**아이원제일차(주) 유동화구조도**



자료: 한국신용평가

**나.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 9. 28. 09:30 춘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힘.

\* [참고자료 5]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2022. 9. 28.) 발취

**다. 기한의 이익 상실**

- 본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고,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음.

\* [참고자료 6] 대출약정의 제3차 변경약정서 (2018. 12. 14.) 발취

○ 또한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할 경우, 이는 아이원제일차가 본건 대출계약의 만기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 [참고자료7] 대출약정의 제5차 변경약정서 (2021. 11. 26.) 발췌

○ 아이원제일차는 김진태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 당일인 2022. 9. 28.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에게 ‘2022. 9. 29. 오후 3시까지 본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통지

○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는 아이원제일차에 의하여 요구된 시각에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불이행’이 논란이 되어 급속히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음.

\* [참고자료 8] 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 (2022. 10. 28.) 발췌

○ 조사단은,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 이전에 보증채무 불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거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오히려 강원도가, 아이원제일차, 강원중도개발공사 및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다른 주주들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9] 진상조사단 강원도중도개발공사 간담회 (2022. 11. 14.) 발췌

\* [참고자료 10] 진상조사단 자료 요구에 대한 강원도 답변서 (2022. 11. 22.) 발췌

\* [참고자료 11] 진상조사단 자료 요구에 대한 BNK투자증권 답변서 (2022. 10. 28.)

\* [참고자료 12]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2022. 9. 28.)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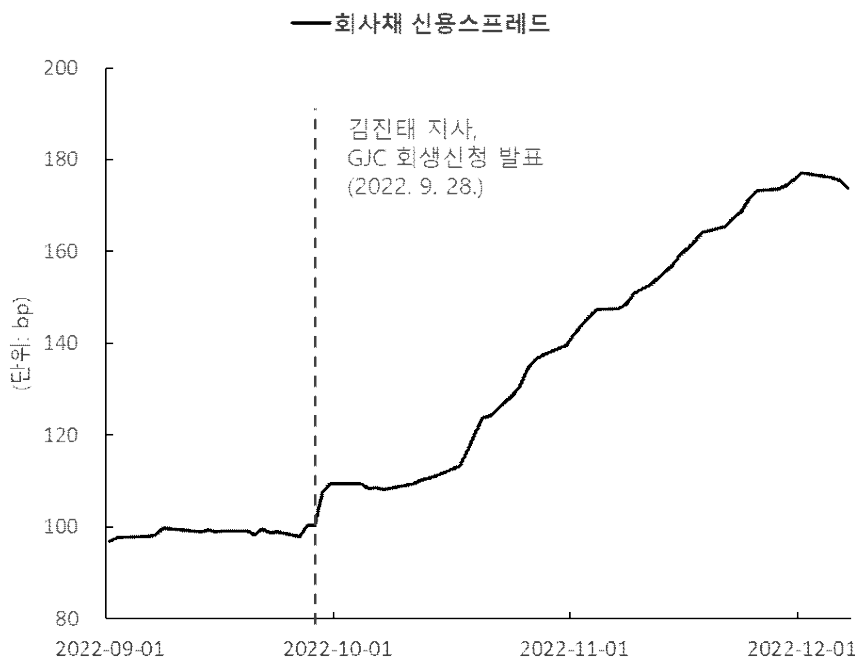
## 라. ABCP 신용등급 하향조정

○ 한국신용평가는 2022. 9. 30.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를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아이원제일차 발행 ABCP 미상환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판단근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신용평가보고서를 공개함.

\* [참고자료 13] ABCP 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2022. 9. 30.) 발췌

○ 또한 한국신용평가는 아이원제일차 발행 ABCP의 신용등급을 ‘A1’에서 ‘C’로 강등하였음.

- 이를 계기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AA- 회사채와 국채의 이자율 차이)의 경우 김 지사의 회생계획 발표 다음 날인 2022. 9. 29.부터 11월 말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금리의 경우 2022. 10. 12.부터 11월 말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 [참고자료 14] CP 91일물 금리 도표

## 마. 시장의 경고와 국회의 문제제기

○ 국내에서는 10월 초부터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신용경색을 경고하는 일련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블룸버그 등 외신들도 2022. 10. 6.경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

\* [참고자료 15] 국내 언론보도 목록

\* [참고자료 16] 블룸버그 기사 (2022. 10. 6.) 발췌

- 국회에서 민주당도 정부 당국자에게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음.

## 바. 계속된 시장경색과 금융당국의 방치

- 국정감사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매일 채권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또한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설명을 하였음. 그러나 그 상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참고자료 17] 진상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 (2022. 11. 21.) 발췌

- 시장에서는 이미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와 신용스프레드 변화 등을 통해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음. 그러나 금융당국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논의를 거쳐 무슨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 오히려 2022. 10. 1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

\* [참고자료 18] 추경호 부총리 기자간담회 (2022. 10. 14.) 발췌

- 결국, 김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계획 발표에 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한 반응과 경고가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2022. 10. 20. 무렵에야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22. 10. 20.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하였음.

\* [참고자료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10. 20.)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점을 인정함.

-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 10. 24.) “최근에 레고랜드하고 자금시장 경색 관련해서 저희가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 이 비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 10. 24.) “저희 금융 당국이 로드맵을 갖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 사실은 어제 발표한 내용들은 그중의 일부를 발표한 건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여당 인사들도 김진태 지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 11. 7.) “이 사항(금융 위기)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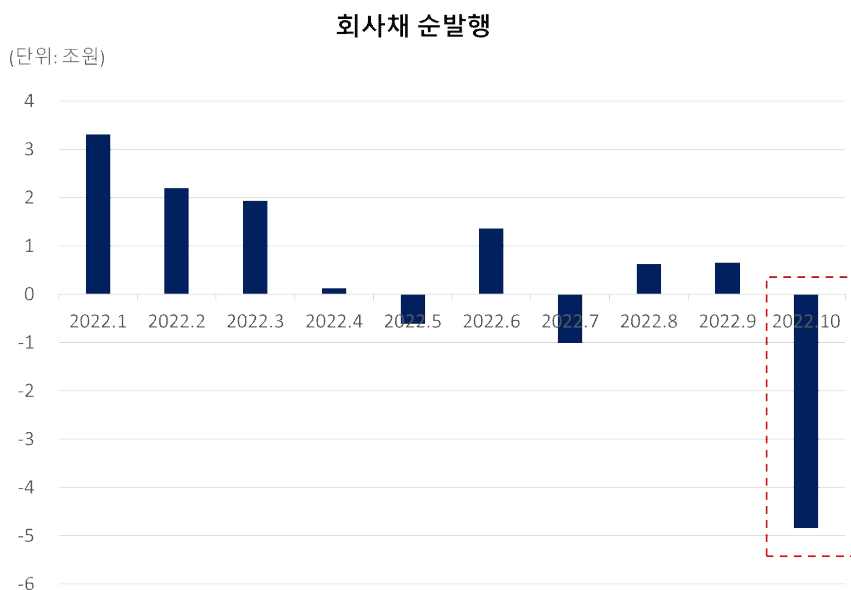
- 유승민 전 국회의원 (2022. 10. 25.)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

- 윤희숙 전 국회의원 (2022. 10. 28.) “채권시장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

#### 사. 금융당국의 방치에 따른 자본시장 경색과 PF시장 파장

○ 전국적으로 채권시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자율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국공채 외 회사채에 대한 투자규모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음.

- 10월 회사채 신규 발행은 전월에 비해 1/3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회사채 순발행액은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자료 : 금융투자협회

- 10~11월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는 8월 대비 약 1.6%p 상승한 연 5.68%를 기록

\* [참고자료 20] AAA급 우량채 10~11월 발행 내역

-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11월 ABCP 금리는 연 20%를 상회함.

\* [참고자료 21] ABCP 금리 관련 기사 (2022. 11. 21.)

- A2 등급 중소형 증권사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급보증’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ABCP를 발행하기 어려워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베스트조선 2022. 12. 9. 보도)

- o 정부는 2022. 10. 23.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한 회사채, CP 매입 등 ‘50조+α 대책’을 긴급히 발표하였음.

- 그러나 채안펀드의 자금은 금융기관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50조+α 대책’은 한정된 자원을 우선 신용경색이 심한 곳에 돌려막기 식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관하여 블룸버그는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위기 확산을 방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 [참고자료 22] 블룸버그 기사 (2022. 12. 7.) 발췌

- 2022. 12. 8.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직후 간담회에서 “단기금융 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연말에느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확대돼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

- o 2022. 10. 28. 경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부도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참고자료 23] 경남 동원건설산업 파산 관련 기사 (2022. 12. 1.)

### 3. 조기상환과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

## 가. 조기상환 관련

- 본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아이원제일차에 의하여 발행된 ABCP의 만기는 2022. 9. 29.이었음.
  - ABCP를 보유한 것은 10개 증권사와 1개 자산운용사인데, 증권사의 경우 모두 고객계좌의 자금으로 투자된 것이며,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운용 펀드 편입자산 ⇒ 결국 ABCP 최종 투자자는 법인 및 일반 고객이라 할 수 있음.
- 당초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아이원제일차는 만기 1개월 전인 8월 무렵부터 만기연장을 협의 중이었음.
  -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만기연장 협의를 위해 4개월분의 선취이자를 지급하며 4개월의 만기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채권자들이 금년 내 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3개월 만기연장 합의가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아이원제일차는 ABCP 재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런데 강원도가 김 지사의 기자회견 하루 전 날인 2022. 9. 27. 아이원제일차 측에 일방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본건 대출계약 관련 대출원리금의 2023. 1. 29. 상환’을 통지
  - 그러나 2022년 중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자로서는 각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여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이점이 그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추후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 결국 강원도는 채권시장 마비 사태 이후 뒤늦게 2022. 12. 15.까지 조기상환하겠다고 밝힘.

## 나. 강원도에게 발생한 손해

- 대출만기일 연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본건 대출계약에 따라 2023. 11. 28.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음.

-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22. 9. 20.에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발부지 매각으로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최대 1,638억원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본건 대출계약에 관한 만기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 2,050억 원에 관하여 연체이자로 1,297,397천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강원도의 채무변제 예정일 2022. 12. 15. 기준)

\* [참고자료 24] 강원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발췌

○ 나아가, 강원도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권자 김 지사로부터 초래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여력이 없는 강원도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 [참고자료 25] 국내 주요채권 발행 유찰 및 실패 현황

#### 4. 향후 조치

##### 가. 제도 개선

○ (김성주 의원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을 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있음.

- 이번 김진태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과 채무불이행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임.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여 사업의 안정성에 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주나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려는 경우 그 절차적인 제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임.

##### 나. 강원도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요구

-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는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연이자로서 기존 대출이자 외에 연 3.0%의 가산이자율에 따른 가산이자(2022. 12. 15. 상환 기준 지연이자 1,297,397천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음.
- 따라서 강원도는 김 지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김진태 개인에게 그 보증채무 부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임.
- 강원도가 지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도를 대표하여야 하는바, 강원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촉구함.

## II. 참고자료

### □ 참고자료 목록

- [참고자료 1] 진상조사단 1차 기자간담회 성명서 (2022. 10. 28.)
- [참고자료 2] 진상조사단 중앙정부 위기대응 관련 기자회견 (2022. 11. 9.)
- [참고자료 3] 진상조사단 강원도 현장 방문 결과 보도자료 (2022. 11. 14.)
- [참고자료 4]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 (2022. 11. 21.)
- [참고자료 5]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2022. 9. 28.) 발췌
- [참고자료 6] 대출약정의 제3차 변경약정서 (2018. 12. 14.) 발췌
- [참고자료 7] 대출약정의 제5차 변경약정서 (2021. 11. 26.) 발췌
- [참고자료 8] 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 (2022. 10. 28.) 발췌
- [참고자료 9] 진상조사단 강원도중도개발공사 간담회 (2022. 11. 14.) 발췌
- [참고자료 10] 진상조사단 자료 요구에 대한 강원도 답변서 (2022. 11. 22.) 발췌
- [참고자료 11] 진상조사단 자료 요구에 대한 BNK투자증권 답변서 (2022. 10. 28.)
- [참고자료 12]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2022. 9. 28.) 발췌
- [참고자료 13] ABCP 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2022. 9. 30.) 발췌
- [참고자료 14] CP 91일물 금리 도표
- [참고자료 15] 국내 언론보도 목록
- [참고자료 16] 블룸버그 기사 (2022. 10. 6.) 발췌
- [참고자료 17] 진상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 (2022. 11. 21.) 발췌
- [참고자료 18] 추경호 부총리 기자간담회 (2022. 10. 14.) 발췌
- [참고자료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10. 20.)
- [참고자료 20] AAA급 우량채 10~11월 발행 내역
- [참고자료 21] ABCP 금리 관련 기사 (2022. 11. 21.)
- [참고자료 22] 블룸버그 기사 (2022. 12. 7.) 발췌
- [참고자료 23] 경남 동원건설산업 파산 관련 기사 (2022. 12. 1.)
- [참고자료 24] 강원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발췌
- [참고자료 25] 국내 주요채권 발행 유찰 및 실패 현황

## 김진태 지사의 거짓, 책임 전가, 惑世誣民을 규탄한다.

김진태 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이 트리거가 되어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 딱 한 달이다. 그 한 달,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금경색과 신용 위기를 겪고 있고, 잇따른 기업도산이 제2의 IMF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심리적 불안까지 덮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황폐해졌다.

이번 '김진태 사태'는 최문순 전임도정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례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民生이 '못된 정치'에 더욱 망가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려 놓고 유유히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빗발치는 비판에 급거 귀국한 김진태 도지사의 입장 표명은 여전히 거짓, 책임 전가, 흑세무민 일색이다.

어제, 김진태 지사와 정광열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은 '죄송하다'며 席藁待罪를 해도 모자랄 판에 '좀 미안하게 됐다', '올해 안에 갚는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식의 당당한 자세였다. 심지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도' 결정이 채권시장에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이라는 적반하장 표현까지 서슴없이 해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2022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된 '김진태지사發 채무보증 불이행'과 관련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검증할 것이다.

첫째, 김진태 도지사 '채무보증 불이행선언'의 적절성 여부다.

회생신청의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는,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는 김진태 도지사의 주장과 달리, 실제 강원도의회 보고\*(증1. 강원도의회 경제건설 위원회 현장방문 설명자료)에서 약 2997억원의 땅을 매각했고, 이중 1200억 원 정도를 회수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1월 만기까지는 전체 채무액의 80% 이상인 최소 1600억 원 이상을 갚을 수 있다고 밝힌바, 이번 강원도의 회생신청이 본 취지와 달리 전임도정 지우기 일환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둘째, '김진태 發 금융위기'의 남탓, 책임전가 검증이다.

어제 김진태 도지사와 경제부지사는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강원도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진상조사단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부도가 난 대출 기관인 "아이원제일차"는 김진태 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기자회견이 있던 9월 28일, 강원도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고지했고, 만기일인 다음날 29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내 2050억원 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채무불이행 선언이 단지 금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분히 의도를 가진 행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대출을 맡았던 금융기관과, 강원도를 상대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셋째, '김진태 發 금융위기'의 확산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최근 춘천시에서는 동춘천산업단지의 매입확약(ABCP)과 관련해 한 금융기관이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단기채권시장이 불능상태에 빠짐에 따라,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설득과 협상 끝에 당초 금리보다 2.5배 오른 13%대로 대출이 연장된 사례\*(증2. 동춘천산업단지 매입확약 관련 문서, 증3. 춘천시 동춘천산업단지관련 대응 방안 문서)가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지자체가 설립한 유동화 회사 10여 곳 (사업비 약 1조 3천억원대)의 대출에 대해 신용도 점검에 착수했고, 17개 시·도지사는 채무보증 이행 협약을 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용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보증 불이행 조치로 인해 기반공사를 맡았던 동부건설이 136억원에 달하는 준공대금을 못 받고 이에 6개 하청업체 등이 줄도산 위기에 노출되는 등 위기가 구체화 되고 있는 현장도 찾아 그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의 12월 15일로 밝힌 채무 변제계획의 적절성과 현실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50조원 + @ 유동성 공급대책', 시장의 차가운 반응과 혹독한 비판에, 김진태 지사는 205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세워 채무를 갚겠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내년 1월이라 했다가, 어제는 다시 12월로 앞당겼다.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본인이 급하다고 2000억원이 넘는 채무 변제계획을 남발하며, 정작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강원도의회에는 그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불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자회견에서는 '2차 추경을 안 쓰고 아껴두었는데 이번에 좀 쓰겠다'는 어이 상실, 막무가내식 답변을 해, 좀처럼 말문이 닫히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은 강원도 추경 예산 대책의 적절성과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 대책에 대한 강원도민의 찬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  
PRESS RELEASE

**더불어민주당 김진태發**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위원장 김종민 의원실 (T.02-784-5920) 간사 오기형 의원실 (T.02-784-4071)  
김교홍 김기식 김성주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위성곤 이성만 이용우 허영 홍성국

제공일 : 2022. 11. 9.(수)      보도시점 : 즉시

## 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경제팀 실종으로 확대된 경제적 참사”

- “최상목 경제수석 경질하고 경제라인 인사 실태 공개하라”
- “김진태 엄호하는 국민의힘, 스스로 경제 무능 선전하는 꼴”
- “아직도 억울해하는 김진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어”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경제팀과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김진태발 금융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며 현 사태를 두고 “국민과 기업, 국가 전체가 피해자인 경제적 참사” 라 규정했다.

또한 보험사의 콜업선 연기 사태를 언급하며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섬뜩한 우려마저 나온다” 면서도 “골든타임을 수수방관했던 금융수장들은 이제 와 외신을 찾아다니며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경제당국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25일간의 골든타임 동안 일상적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제당국은 사태의 발단이 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일절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벼랑 끝에 선 듯한 금융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윤석열 경제팀이 오히려 자취를 감췄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2] 진상조사단 중앙정부 위기대응 관련 기자회견 (2022. 11. 9.)

또한 “자금시장이 초토화되는 동안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에는 금융당국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며 대통령실 경제 라인의 밀실 인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힘도 겨냥했다. “김진태 지사를 엄호하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얼마나 경제에 무능한 정당인지 발 벗고 나서서 선전하는 꼴” 이라며 “어떻게든 전 정권을 타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태의 핵심은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끝까지 억지 비호에 나서는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있겠냐” 고 질타했다. /끝/

[붙임1] 기자회견문 전문

[붙임2] 기자회견 참고자료(6p)

##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2022. 11. 9.

사회적 참사로 인한 국민의 상처가 깊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국민과 기업, 국가 전체가 피해자인 경제적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진태發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가히 경제적 참사라 할 만합니다. 오늘(9일) 단기자금시장의 바로미터격인 CP 91일물 금리가 연 5%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신용스프레드는 지난 7일 기준 한 달 전보다 40bp나 상승한 151bp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지난 3일 75bp를 기록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고한 대로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흥국생명·DB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섬뜩한 우려마저 나옵니다. 골든타임을 수수방관했던 금융수장들은 이제 와 외신을 찾아다니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50조+a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점에 충분하지 않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정부의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 시스템의 실종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28일<sup>1)</sup>부터 10월 23일<sup>2)</sup>까지, 25일간의 골든타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일상적 모니터링 이외에 별도의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은 매일 시장의 지표나 동향 등을 임원에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별도 회의나 내부 보고, 경제 당국과의 소통은 없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에 사태의 발단이 된 강원도 및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당국 내에 김진태<sup>3)</sup> 채권 불신 확산에 대한 위기 인식이 부재했으며, 채권시장 충격을 금리 인상 등 요인에 의한 일상적 위기 정도로 치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9월 28일자 2건은 증시하락 △10월 12일과 13일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10월 14일자 2건은 미국 CPI 발표에 따른 대응책 논의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7일에는 저축은행, 여신금융, 증권업권에서 당시 시장 상황과 함께 부동산 PF 부실 발생 가능성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1) 9/28 김진태 지사 회생신청 발표 기자회견일

2) 10/23 정부 50조+a 대책 발표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시장이 얼어붙는 동안에도 금융당국에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노력을 강화하겠다”, “점검을 지속하겠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식의 언급만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를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국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시점은 10월 12일과 20일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각각 △회사채·CP 매입 여력 2조원 확대,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유예, △악성루머 단속 등 좀스럽고 민망한 수준의 짚کم대책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째서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방조하고 대책 발표 시점을 늦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경제팀의 실종입니다.

벼랑 끝에 선 듯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윤석열 경제팀이 오히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장과 기업,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경제사령탑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 해결할 금융정책 전문가라던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금융을 직접 챙기겠다며 화려하게 부활시킨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의 실종은 지난 10월 27일,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던 대통령 주재 회의 생중계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윤석열 경제팀은 김진태發 자금조달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때아닌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동산 PF가 휘청이는 판국에 “빛내서 집 사라”고 말하는 것이 정녕 최선입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경제팀이 꾸려지기는 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에 금융당국 파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24일, 자금시장이 초토화된 이후에야 금융위 과장 출신이 단 1명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부처 파견인력 현황 자료를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안입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가 밀실 경제팀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잇따른 경제 실책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지와 무능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실 경제라인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의 엄치 실종입니다.

김진태 지사를 엄호하는 정부·여당의 안간힘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얼마나 경제에 무능한 정당인지 발 벗고 나서서 선전하는 꼴입니다.

어떻게든 전 정권 탓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사태의 핵심은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입니다. 김진태의 무지와 무능으로 채권시장의 생명과 같은 신뢰가 무너졌고, 그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조달시장이 더 빠르고 심각하게 얼어붙은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어째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감싸기에 급급한 것인지 한심합니다. 아직도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입으로 말한 적 없다며 억울해하는 김진태 지사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마치 없는 위기를 창조한 것처럼 매도한 적도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경제에 밝은 인사들은 이미 김진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억지 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민의힘에게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온 이후에야 정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가 또 언제 얼마나 늦을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發 2050억의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 세대 앞을 내다본다는 것인지 불신이 앞섭니다.

현재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궁극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흑한의 위기와 침체가 도사리는 상황에서, 긴 안목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과 실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밝혀내서 이러한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11. 9.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 자금시장 얼어붙는데 위기 인식 없었던 금융당국

## 1.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강원도-기획재정부 협의 내역

### □ 강원도-기획재정부 간 협의 내역(9. 28.~10. 27.)

협의 일자	방식	내용	참석자	비고
10. 24.~26. 사이	전화 통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연내 상환	강원도지사-경제부총리	정확한 통화날짜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이하 내용 없음

## 행동 없는 말잔치... 금융당국의 안일한 시각

### 금감원, 부동산사 관련 업권별 건담회 실시 (매포 지)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환)은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금융업권 건담회를 개최하여 시장의 최근 및 예상사항을 정리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에 당부하였음

### ※ 부동산사 관련 건담회 개요

#### 10/7 금융업계에서 시장 상황과

#### 부동산 PF 부실 발생 가능성 전달했으나

#### 무대응으로 목살한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근무직원, 3개 중견사 부동산부 부서장 및 CEO)

- 금융회사들은 최근 시장여건 악화 등에 따른 부동산PF의 부실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였음
- 이에 금감원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금융회사들이 손익회계수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 부문부문의 저세력소재 차관을 원할하고 유가증권의 공급하는 등 또한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 정상적인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응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채권시장 관련 불안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고...  
10/12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중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10/12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지속...  
10/14 금융상황 점검회의 중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노력도 지속...  
10/14 금융상황 점검회의 중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적기 조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  
10/14 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후

## 김진태發 금융위기 = 윤석열 경제팀 실종사건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병현 경제금융비서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그 여파가 확산될 단계는 아니다.” (10/14)  
 “당국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1차 취하고 있다” (10/21)

**"좀 미안하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24)  
 “처음 이슈 됐을 때 회사채-CP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 (10/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응 시기에 대해) 사실은 우리 당국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긴박한 논의가 있었다” (10/24)  
 “시장 안정조치 효과... 다음주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 (10/27)



## 윤석열 경제팀은 인사 실태 공개하라

**2022. 5월**

경제위기 해결할 '금융정책' 전문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  
 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경제위  
 기 전문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국  
 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시급히 해  
 결해야 할 경제문제가 산적했다”며

대통령실, 금융 직접 챙긴다... '경제금융비서관' 부활

경제정책비서관 → 경제금융비서관  
 경제정책, 재정, 성장, 산업, 금융 부문  
 일괄적 '총괄' 맡아... 금융정책 담당업무 전수시켜

최니호 기자 | 2022.05.25 | 내외부뉴스

【尹대통령실】경제금융비서관에 김병현...기사-기회분야 '차별론'

비서관은 거시경제 정책기획 분야에서 부우 경험을 쌓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반에 이해가 깊은 경제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5일



**2022. 10월**

[단독] 금융시장 초토화됐는데...대통령실에 금융당국 파견 0명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0월 14일 금융당국  
 파견 0명, 10월 27일  
 1명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포커스] 대통령실, 이재아 경제수석실에 금융위 과장 배치

최고경영자(CEO) 1인 1팀을 맡고 있는 이재아 수석  
 경제수석실은 10월 27일 1명 파견

<윤석열 의원 요구자료>

<소속 부처별 직원 현황>

1. 대통령실내 편입 또는 버려진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의  
 명 소속 부처(청, 산하 공공기관 및 재 포함)별 인원 및 배치

□ 요구하신 자료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포위하고 국가기밀, 보안, 중요정책 결정 등을 다루는 기관의  
 특수성과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개하지 못하는  
 상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비서실



**보도자료**  
PRESS RELEASE

**더불어민주당 김진태發**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단장 김종민 의원실 (T.02-784-5920) 간사 오기형 의원실 (T.02-784-4071)  
김교훈 김기석 김성주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위성곤 이성만 이용우 허영 홍성국

제공일 : 2022. 11. 14.(월)

보도시점 : 즉시

## 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 강원도 현장 방문에서 김 지사의 '무책임한 고의부도' 를 확인

- 강원중도개발공사 '계약서 상 희생신청 절차 개시는 부도 사유' -
  - 김 지사는 면담 회피하고 레고랜드 관련 국회 포럼 참석 -
- 부지사 등은 중앙부처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 -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은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의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희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희생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희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계약서에 희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파산신청 또는 희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정 부지사 등은 희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실무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했다.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끝/

**보도자료**  
PRESS RELEASE

**더불어민주당 김진태發**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단장 김종민 의원실 (T.02-784-5920) 간사 오기형 의원실 (T.02-784-4071)  
김교홍 김기석 김성주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위성근 이성만 이흥우 허영 홍성국

제공일 : 2022. 11. 21.(월)

보도시점 : 즉시

## 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에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을 요청

- 금융위·금감원, 10월 초~중순에 채무불이행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고 답변 -
  - 단, 강원도와는 직접 소통하지 않았음을 인정 -
  - 두 기관은 모니터링 및 내부 논의 자료 등의 제출을 약속 -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단장 김종민)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대응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이하 진상조사단)의 김종민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건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위협할지 모르는 만큼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명순 수석부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 28.에 희생신청을 발표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다고 답변했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 것은 10월 초~중순 경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심각성을 인지한 후 내외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으며, 강원도와는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추경호 부총리가 10. 14.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이때까지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5] 아이원제일차 유동화구조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자료와 금융위기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시점, 내부 논의 자료, 정부 차원의 소통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간담회나 별도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참고자료 5]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2022. 9. 28.) 발췌

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호 개정안도 이렇게 통과되고, 우리 이제 강원도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레고랜드 문제,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강원중도개발공사 아시죠. GJC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법정관리 신청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제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중도개발공사가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중도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해주기 위한 등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그동안 경영이 너무 악화되고 이제 부실하게 돼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강원도가 고스란히 보증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회생이나, 파산이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파산하는 거보다는 회생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태까지 GJC가 해 오던 일이 모든 운영과 자금 집행이 이 회생신청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 처리가 없었는지 전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정관리인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정관리인도 손을 떼고 새로운 인수자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레고랜드는 이미 오픈해서 지금 영업 중입니다. 우리는 이 GJC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남아 있는 자산을 잘 매각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우리 강원도 땅이 꽤 있습니다.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이런 자산을 다 제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입니다.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 구조임에도,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겠습니다.

이 회생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들도 회생을 잘 모릅니다.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면. 회생하고 파산의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우리가 또 좀 그런 검토를 해 봤는데요. 파산하게 되면은 그게 빚잔치가 되는 건데 보증채무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증채무를 그대로 다 물어줘야 되는데, 회생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해오던 활동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잘 좀 이렇게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자산을 잘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그 회사도 좋고. 우리 보증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강원도도 좋고. 그런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다.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1조 본건 사업의 개요 및 정의

### 제2항 정의

5. "기한이익상실사유"라 함은 이 약정서 제11조 제1항 (1)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및 동항 (2)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말하고,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17. "부도사유"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가. 해당 당사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이에 대하여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

## 제11조 기한이익의 상실

### 제1항 기한이익상실사유

이 약정서 상 아래 (1) 및 (2)에 기재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구성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1. 차주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기존 대출약정 제6조 제5항 제(1)호, 제4차 변경약전 제5조의 변경)

(1) 아래 각 호의 사유(이하 “대출만기일 연장 조건”)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대주는 2023년 11월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의 요청에 따라 대출만기일을 수 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주는 차주의 대출만기 연장 요청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여부, 대출만기 연장에 따라 대주가 차환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계약 체결여부, 유동화증권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주가 단독으로 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참고자료 8] 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 (2022. 10. 28.) 발췌

둘째,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을 발표하자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원도에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2,050억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고자료 9] 진상조사단 강원도중도개발공사 간담회 (2022. 11. 14.) 발췌

강원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 또한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고요, 사전에 아무런 저희 회사랑 사전 협의나 심지어는 통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도청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보완 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강원도가 앞으로 잘 풀어나가겠다’”

2. 2022. 9. 28.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발표 이전에 강원도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자료

- 회생계획 발표 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으나, 관련 자료는 계약서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성국 의원실에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 래 -

1.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관련 대출약정서 사본  
- 책임자 모친상 (2022.10.28. 통상 5일 이내 휴가)
2. BNK투자증권이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관련하여 사전 고지를 받거나 협의한 내역 일체  
- 해당사항없음
3. 강원도가 BNK투자증권에 '대출약정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공문사본  
- 해당사항없음

감사합니다.

**BNK** 투자증권

(기자 질의) 일단 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주주들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데, 다 얻으셨는지? 2대 주주가 멀린이고, 나머지 5개사가 주주.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들도 마무리하고 이게 결정이 되신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44%를 가지고 있고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주보다도...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뭐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보다 살짝 문제는 대출 채권자인 BNK 회사 채권자의 입장이 조금 중요한데, 이 법원에서 이거를 회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제가 받아서 더 여태까지 해오던 일을 효율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출해 준 그런 금융기관에서도 좀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득을 해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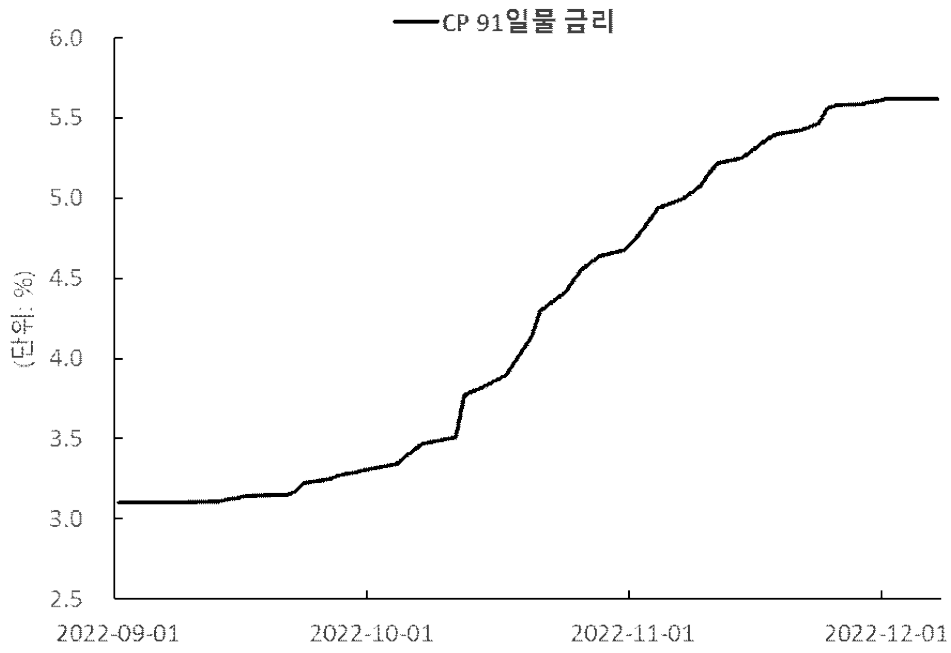
##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신용도 관련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구성 체계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를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이번 아이원제일차(주)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금 지급의무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아이원제일차(주) 발행 ABCP 미상환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판단근거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신용도 판단의 주요 기반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의 신용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신용도 판단기준을 유지한다. 강원도의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통제 및 지원 등의 수단이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단, 강원도의 의사결정과 같은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재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차원의 통제 및 관리시스템이 통합적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14] CP 91일물 금리 도표



- 10/4 커지는 '부동산PF 부실화' 위협, 정부 경각심 가져야 한겨레신문
- 10/5 우려 커지는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조마조마한 증권사들 디지털타임스
- 10/6 "경제 쓰나미 코앞까지 왔는데 尹정부 대응책 보이지 않는다" 아주경제
- 10/6 지자체 보증 ABCP 신용 '비상' 한국경제
- 10/7 "지자체도 못 믿겠다" 투자 불안감 확산 이데일리
- 10/11 지자체發 레고랜드 PF 리스크에... 회사채 시장 '살얼음판' 이투데이
- 10/12 부동산 PF시장 경색 조짐... 증권사 '흑자부도' 로 번지나 파이낸셜뉴스
- 10/14 금융위기 데자뷔... 신용등급 강등 사태 닥치나 중앙일보
- 10/19 "AA등급 회사채도 안팔려"... 기업들 자금경색에 비명 매일경제

## Legoland Korea Developer's Default Flags Property Risks

- Borrower missed payment on 205 billion won loans for project
- Event may dent mood toward property-related debt: Samsung Sec.



● LIVE ON BLOOMBERG  
Watch Live TV >  
Listen to Live Radio >

**Bloomberg  
Television**

Visitors at Legoland Korea in Chuncheon, South Korea.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By Kyungji Cho

2022년 10월 6일 오전 11:47 GMT+9 Updated on 2022년 10월 7일 오후 6:54 GMT+9

[참고자료 17] 진상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 (2022. 11. 21.) 발췌

<p>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일과 시작 전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하며, 단계적 절차를 거쳐 위원장까지 전달되는 시스템’</li> <li>● ‘단, 위원장이 열람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li> </ul>
<p>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를 인지한 시점은 10월 초~중순 정도로 기억’</li> <li>● ‘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li> <li>● ‘최근 들어 거의 한달 정도 매일 오전 9시에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으나 이것도 매번 기록을 남기지는 않음.’</li> </ul>

그리고 한전 적자 회사채 발행은 어제 오늘도 아니고 한전의 시장하고 지금 조금 소위 말하는 크레딧이 낮은 신용이 좀 낮은 쪽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자금 조달 어려움 겪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응하는 현재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정상적인 기업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는 시장 안정에 관한 여러 조치들 1단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런 정책금융기관들이 나서서 CP 시장 회사채 시장 금융기관에서 문제 없도록 조치 하고 있다. 다만 그야말로 경쟁력 없는 그런 기관들이 자금을 유통하고자 할때 시장기능은 시장기능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 겪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대응을 좀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들이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개런티도 했던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강원도 재정상황 고려해서 어케 풀어갈 것이냐 아마 지사가 1차 판단을 해서 지금과 같은 대응한거같은데 잘 풀어가야 할거고 이런것들이 전체 지자체, 또 전체 ABCP 보증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타격을 받아선 안될거고 아직 확산될 그런 단계는 아닌거같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그런 움직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관심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금융위원회</b> <b>보도참고자료</b>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b>보도 일시</b>	<b>배포시</b>	<b>배포 일시</b>	2022. 10. 20.(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윤영주 (02-2100-2851)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사항**  
- 회사채 시장 및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관련 -

- 금융당국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원도 PF-ABCP 관련 이슈 이후 확산되는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 이와 관련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황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장대응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안펀드 여유재원(1.6조원)을 통해 신속히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 증권사·여전사 등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 유예 등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의 일부 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20] AAA급 우량채 10~11월 발행 내역

발행일	종목명	발행액(백만)	확정수익률(%)	발행사	종목 신용등급
2022-10-06	증권금융채권2022-3	100000	5.097	한국증권금융	무보증 AAA
2022-10-18	신한금융지주151-1	40000	5.48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0-18	신한금융지주151-2	80000	5.559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0-18	신한금융지주151-3	70000	5.615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0-25	한국서부발전55-1	40000	5.644	한국서부발전	무보증 AAA
2022-10-25	한국서부발전55-2(녹)	100000	5.955	한국서부발전	무보증 AAA
2022-11-04	한국남동발전55-1	70000	6.063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2022-11-04	한국남동발전55-2(녹)	20000	5.908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2022-11-10	신한금융지주152-1	160000	6.102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1-10	신한금융지주152-2	110000	6.169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1-10	신한금융지주152-3	30000	6.115	신한지주	무보증 AAA
2022-11-23	한국수력원자력68-1(녹)	70000	5.484	한국수력원자력	무보증 AAA
2022-11-23	한국수력원자력68-2(녹)	50000	5.504	한국수력원자력	무보증 AAA
2022-11-28	한국서부발전56-1(녹)	70000	5.412	한국서부발전	무보증 AAA
2022-11-28	한국서부발전56-2(녹)	10000	5.294	한국서부발전	무보증 AAA
2022-11-29	한국남동발전56-1(녹)	50000	5.848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2022-11-29	한국남동발전56-2(녹)	80000	5.755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2022-11-29	한국남동발전56-3(녹)	40000	5.469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2022-11-29	한국남동발전56-4(녹)	50000	5.353	한국남동발전	무보증 AAA

### ABCP 금리 年20% 넘었다... 이번달 값을 금액만 17조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동산 단기자금경색 심화 지속  
오늘부터 '1.8兆 매입'으로 수혈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하고 GS건설이 신용보강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2+등급)가 연 20.3~21.0% 금리에 거래됐다. 잔존만기가 39일짜리였다. 같은 날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사

업 자금 조달을 위한 PF ABCP도 잔존만기 60일에 연 15.03%로 자금을 조달했다. 16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고 KB증권이 신용보강한 지디아씨제이차(A1등급) 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는 만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연 9.9% 금리에 거래되기도 했다.

9월 초 연 3~4% 내외였던 PF ABCP 금리는 9월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급격히 상승해 10월 중순 연 7~9% 수준에서 형성됐다. 11월 중순에는 증권사나 건설사가 신용보강한 PF ABCP 금리가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오는 PF ABCP 잔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 중 절반에 가깝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증권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PF AB

CP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21일부터 증권사 보증 PF ABCP에 대한 1조5800억원 규모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조5800억원은 9개 대형 증권사가 500억원씩 각 출한 4500억원(중순위 25%)에 산업은행·증권금융이 각각 4500억원씩(선순위 25%) 보태고, PF ABCP 매입을 신청하는 증권사가 나머지 4500억원(후순위 25%)을 마련해 조성됐다. 김은정 기자




**Bloomberg** Asia Edition ▾ You

• Live Now **Markets** Economics Industries Technology Politics Wealth Pursuits Opinion Businessweek Equality Green CityLab Cr

Markets

# This Legoland is a Cautionary Tale as an Era of Easy Money Ends

- Shock of developer's default sent short-term yields soaring
- Korea officials say they've stopped the crisis from spreading



What Can We Learn From South Korea's Credit Crisis?

By [Kyungji Cho](#) and [Sam Kim](#)  
2022년 12월 7일 오전 6:00 GMT+9

Share this article

Sitting in a lake teeming with wildlife, several hours by train from

### Most Read

Green  
**Elon Musk's Bankers Consider Margin Loans to Cut Risky Debt**

Technology  
**Musk Spars With San Francisco Probe of Bedrooms at Twitter**

Markets  
**Stocks Snap Back in Course Key PPI Numbers: Market**

Businessweek  
**Airbus Is Coming for Boeing**

Markets  
**Bruising Stock Reversal Suggests Fed's Pivot May Come Tomorrow**

# 중견 동원건설산업 부도...PF發 연쇄도산 시작되나

<경남 18위 건설사>

## 악성 미분양 넘치고 '돈맥경화' 70여개 협력사 충격과 불보듯

경남 지역 도급 순위 18위의 중견 건설사인 동원건설산업이 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동원건설산업이 진행하고 있는 창원시 복합행정타운 등 공사 규모만도 600억 원에 달해 70여개 협력사가 연쇄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에서 시작된 '돈맥경화'의 파

고가 한계기업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건설 업계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동원건설산업은 이달 25일과 28일 경남은행에 도래한 어음 22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는 2000년 경남 창원에 설립돼 근린상가·관공서 등의 도급 건설을 맡아온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은 542억 원이다.

장기영 동원건설산업 대표는 서울경

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며 “여기에 준공을 마친 건물조차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시행사가 도산했고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비 250억 원을 대신하기 위해 연 36%의 금리를 내건 사금융을 이용해 협력사 대금 등을 지급했지만 채무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부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수민·한민구 기자

**3면으로 계속**

[참고자료 24] 강원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발췌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대출원금	205,000,000	
이 자	2,075,835	이자율 4.8%/연, '22.09.29.~'22.12.15.(77일)
연체이자	1,297,397	연체이자율 3.0%/연, '22.9.29.~'22.12.15.(77일)
원 천 세	519,477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지금액	-3,826,600	GJC→아이원제일차, 4개월분 이자 등 선납(8. 26.)
<b>합 계</b>	<b>205,066,109</b>	

[참고자료 25] 국내 주요채권 발행 유찰 및 실패 현황

- (10. 17.) 한국도로공사 1,000억 원 유찰, 한국전력공사 1,200억 원 유찰
- (10. 18.) 인천교통공사 300억 원 유찰, 국가철도공단 채권 유찰
- (10. 19.) 과천시공사 600억 원 유찰, (10. 21.) 둔촌주공 PF 7,000억 원 차환 실패
- (10. 22.) 부산교통공사 500억 원 공사채 유찰, 한국전력공사 2,000억 원 채권 유찰
- (10. 24.)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채권 유찰 (10. 25.) 인천공항공사 채권 유찰
- (10. 26.) 춘천 동춘천산업단지 개발 채무보증 금리 인상(5.69% → 13%)